

미주 순회 낭독회

참가 작가에게 듣는다.



김애란 작가



이혜경 작가

공통 질문

Q1 낭독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

Q2 낭독회를 마친 소감

Q3. 작가 낭독회를 평가한다면?

A1 외국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. 활자로 된 감상문도 좋지만, 현장에서 느끼는 독자들의 표정, 소리, 제스처 하나하나도 근사한 독후감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.

A2 낭독회의 즐거움 중 하나는 '내가 말한다' '내가 읊는다'가 아니라, '나의 말이 당신과 만나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는가'를 지켜보는 것이었다.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제 소설의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, 어느 부분에서 웃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.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생전 처음 받아보는 질문들도 있었다. 내가 쓰는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각과 거리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여행이었다.

A3 낭독 이후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서 낭독회가 진행될수록 풀턴 선생님과 시간을 좀 조율해 나갔다.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. 여담이지만 미국이라는 공간에 대해, 또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성격과 서사의 특징에 대해 궁리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.

A1 엠블보단 잿밥에 더 마음이 있었다. 북미 대륙엔 가본 적이 없으니 그곳의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잠깐이나마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. 글이 잘 안 풀리던 시기에 낭독회 참가 제의를 받았는데, 청중 앞에서 낭독하다 보면 내 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. 일석이조의 기회였다.

A2 낭독을 하면서 내 글쓰기를 점검하게 되었다. 어떤 문장은 두세 문장으로 나누는 게 어땠을까 싶었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게 나았겠다 싶은 경우도 있었다. 학생들의 열의를 대한 것도 내게 공부가 되었다. 내가 채 읽지 못한 한국고전문학을 탐구하는 학생들을 보며 반성도 했고, 낭독 후에 받은 질문에서 각 대학의 특성이 느껴지는 것도 흥미로웠다.

A3 떠나기 전, 작년에 다녀온 동료작가로부터 '일정이 빡빡해서 고되긴 하지만 꼭 가면 좋을 것'이라는 말을 들었다. 동감이다. 작가에게는 외국의 독자들, 한국문학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한국작가라는 실체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. 감사드린다.